

2019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지속가능한 커피산업의 열쇠, 여성 커피인

다가오는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올해 110주년을 맞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 커피 생산자들의 이야기를 기획기사로 다룬다. 단지 성별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커피산업은 지금보다 더욱 큰 성과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Editor 홍유정 Photo Marlies Gabriele Prinzi, Maria Fernanda Carrillo, 강화승

Women in Coffee Industry



커피산업 내 성별 격차, 해소해야 하는 이유

최근 성 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이슈로, 커피 산업에서도 문제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불평등 문제는 커피생산지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점은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가 커피의 품질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성 차별 문제가 해소된다면 커피산업에는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① 품질 개선

양성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들에게 공평한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면 전 세계에 공급되는 커피 품질과 일관성이 향상된다. 스파셜티 커피재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정체되어 있던 여성들이 개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로 공정무역 커피기업 '부콘조 조인트(Bukonzo Joint)'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부콘조 조인트는 남성들이 대부분이었던 기술 훈련 대상자에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포함시켰고, 결과를 지켜봤다. 이후

4년에 걸쳐 커피 품질은 계속 향상했고, 기존 79점이었던 평균 커피링 점수는 85.75점으로 증가했다.

②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과 더불어 생산성을 늘리는 것 역시 가능하다. 식량·농업조직(FAO)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면 생산량을 20~30%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커피 생산량 감소의 이면에는 기후 변화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 구조 역시 작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덧붙여 여성 생산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면 이들의 생계가 나아진다는 정도 이상의 여지가 없다. 즉, 성 평등은 지속가능한 커피산업을 만들어감에 있어 필수 요소인 셈이다. 그렇다면 커피 가치 사슬에 속해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지가 선행돼야 하는 법이다.

이번 기획 기사를 시작으로 전더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세계 여성의 날이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75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3월 8일은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의 업적을 법제적으로 기리는 날이다. 세계 여성의 날이 3월 8일로 지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00년대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12~14시간을 근무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노동조합 결성권도 갖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08년, 한 작업장에 화재가 일어났고 근무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불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미국 여성 노동자들 1만 5,000여 명이 10시간 근무,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그 날이 바로 1908년 3월 8일이다.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는

여성 커피생산자의 현실

우리가 커피산업 내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 커피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제약받고 있는 이들의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여성 생산자, 여러 형태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 현저히 낮아

글로벌 커피산업에 대한 여성들의 기여도는 상당하다. 국제커피기구(ICO)에서 2018년 9월 발행한 '커피산업 내 평등과 젠더'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업별 여성들의 커피 생산 기여도는 현장 작업이 90%, 수확 활동은 8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여성에 의해 운영되는 커피 농장은 20~30%이며, 전 세계적으로 추정되는 2,500만 명의 커피생산자 중 약 5백만 명이 여성이다.

그러나 커피 생산과정 내의 역할 분담 구조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커피 품질을 관리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책임을 맡지만, 마지막 단계인 '거래' 혹은 경영의 경우 남성들이 담당한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들의 노

동수준에 맞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 여성들은 토지나 정보 등 여러 자원에 대해 남성보다 낮은 접근성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은 남성 대비 자원에 대한 높은 통제를 받으며,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가족 형성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이 미미하다. 이밖에도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등 사회적 구조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는 여성 생산자들의 수확량과 생산성, 농장 수익 등 경제적인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들의 낮은 자원 접근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커피 생산과정 내 남녀 역할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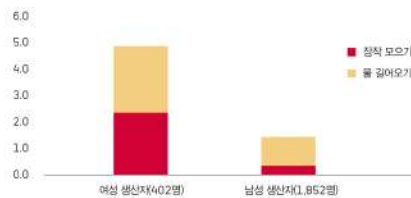
1. 토지접근성

[표] 토지 접근에 대한 성별 격차

남성 농장 규모	여성 농장 규모	지역/국가	출처
1.05	0.84	우간다	Sakabira and Gaim, 2017
2.34	1.85	콜롬비아/에라도르	Avila and Usache, 2016
0.23	0.13	에티오피아	
1.06	0.75	우간다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World Bank LSMS-isa
0.84	0.51	탄자니아	

위의 표는 여러 조사 결과를 취합한 것이다. 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25% 적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우간다의 경우 20%의 격차가 있으며, 탄자니아는 40%로 차이가 훨씬 심한 편이다.

[그림2] 남녀 생산자의 가사 노동 수행시간



2. 노동력

또 한 가지 여성 생산자가 불리한 점은 남성들에 비해 두 배의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사 노동과 농업 활동에 대한 불평등한 시간 할당 때문으로, 이는 여성의 영향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림2]를 보면 에티오피아 커피농부 중 여성들이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모으는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일주일당 4.9시간이다. 반면 같은 일에 남성들이 쏟은 시간은 1.5시간에 불과하다. 그 결과 남성들은 여성보다 50% 가량 많은 시간을 농업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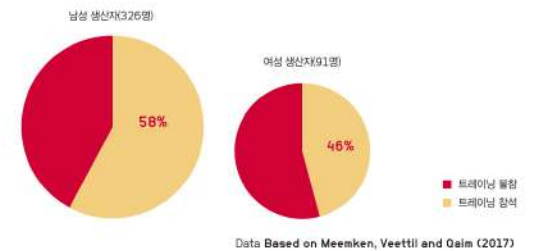
3. 교육

여성들은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역시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을 보면 트레이닝에 참가한 남성 생산자와 여성 생산자의 비율은 각각 58%, 46%로 차이가 있다. 기초 교육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콜롬비아와 에라도르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남성들은 4.05~6.43년 동안 교육받지만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시간은 3.27~5.27년이다.

세계은행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국가는 학교 출석률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에티오피아는 54%의 남성이 정규 교육을 받지만, 여성의 경우 학교에 출석한 인원이 14%에 불과하다. 우간다도 남성 92%, 여성 66%로 역시 격차가 크다.

농업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에서도 차이는 존재한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요인에 대해 언급했는데, 첫째로 남성들은 '의사결정자'이지만 여성들은 있더라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사 노동과 농업을 병행하는 탓에 시간의 제약과 부담이 크고, 여러 사회적 규범 또한 여성들이 한계에 부딪히게 한다.

[그림3] 남녀 생산자의 트레이닝 참석 비율



커피산업 젠더 관련 보고서를 볼 수 있는 곳

2003년 국제여성커피협회(IWCA)는 여성의 권익 향상을 통해 커피산업의 발전을 일궈내 고자 설립된 조직으로, 우리가 커피산업의 젠더 문제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부터 관련된 연구 결과, 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여러 자료는 IWC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womenincoffee.org

더 나은 커피산업을 향한 행보를 펼치는

빈보야지커피 Bean Voyage Coffee

스페셜티 커피를 재배할지 말지는 단순히 생산자의 선택일까? '빈보야지커피' 탁승희 공동대표는 여기에 의문을 품었다. 더 나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하지 못하는 게 접근성,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건 아닐지 질문을 던진 것이다. 탁대표가 이끄는 빈보야지커피 소개와 함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그녀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빈보야지커피(Bean Voyage Coffee)

여성 소농들과 함께 하는 비영리 단체다. 상호는 '즐거움 여행 되세요'라는 뜻의 불어 'Bon Voyage'에서 착안한 것으로, 그동안 만났던 여성 농부 중 한 명이 자신의 커피를 통해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고 한 말에 영감을 받아 지은 이름이다.

빈보야지커피를 시작한 탁승희 공동대표는 수익을 많이 내는 모델이 아니라, 이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커피산업이 조금이나마 더 공정한 방식으로 이윤을 나누고, 그로 인해 국가간의 경제적 차이나 국가 내 빈부격차 및 사회적 차별이 감소되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며 여성 소농들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Womxn-powered Coffee 프로젝트

빈보야지커피가 가장 집중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Card Trade Model'이라고도 칭한다. 이는 여성 소농들에게 커피 트레이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스페셜티 커피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이며, 이렇게 생산된 커피를 시장에 연결해 지속 가능한 고리를 만드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2016년 두 명의 여성 농부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2017년에는 16명의 트레이닝을 시행했다. 2018년에는



는 처음으로 전체 커리큘럼을 시도해, 4개월에 걸쳐 총 47명의 여성 농부를 트레이닝했다. 평균 수업시간은 84시간으로, 커리큘럼은 예산 작성, 기초 회계 등의 경제지식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및 스토리텔링, 커뮤니티와 젠더에 관한 워크숍, 지렁이분·퇴비 및 유기농 농업, 커피 프로세싱, 그리고 로스팅과 커피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루시아 솔리스(Lucia Solis), 마리아 로드리게즈(Maria Rodriguez) 등 커피산업과 농업 관련 필드에서 저명한 이들이 트레이닝을 맡아, 더욱 알찬 교육이 가능했다.

프로젝트 성과

이러한 트레이닝을 통해 소량이지만 1kg당 300% 이상 임금 인상을 받거나, 처음으로 마이크로일을 시작해 독립한 농부가 있다. 또한 로스팅을 배워 주말에 시장에서 커피를 판매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은 이들도 찾아볼 수 있다.



INTERVIEW

빈보야지커피
탁승희 공동대표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빈보야지커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탁승희입니다. 현재 런던 정경대에서 정책, 개발, 젠더(gender)에 중점을 둔 석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빈보야지커피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2014년 12월, 대학교 동창들과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이를 위해 펀드레이징(Fundraising)을 했고, 이후 한 달간 코스타리카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당시 방문했던 곳은 코스타리카 남쪽 베레젤레돈(Perez Zeledon)에 위치한 라 리베라(La Ribera)라는 작은 동네였는데, 커피수확이 한창이었기에 농부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이때 두 가지가 놀라웠는데, 첫째는 커피농부가 1kg 커피의 대가로 3달라 미만의 낮은 금액을 받는 것이었고(특히 코스타리카는 주변 국가에 비해 물가가 아주 높습니다), 다른 하나는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커피산업에 종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커피농

장은 남성의 영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고, 여성들은 그들의 성과에 걸맞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니다. 여성이 농장주일 경우에도 단지 성별 때문에 피커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커뮤니티에서 차별을 겪기도 한다더군요.

이후 대학에 들어가 더 많은 조사를 했고, 비단 코스타리카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농경사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여러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죠. 2016년 5월에 대학을 졸업한 뒤 다시 코스타리카로 돌아와 농부들과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 니즈에 맞춰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성 차별 문제는 여러 산업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커피'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커피로 하얼금 많은 사람들이 연결된다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소비자, 바리스타, 로스터, 커피 농부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커피 가치 사슬에 속해있으니까요. 또한 커피는 생산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끄는 생산물 중 하나라고 생각했고,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커피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정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빈보야지커피를 시작했어요.

더 나은 커피 커뮤니티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커피산업 내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의 커피가 어디서, 누구의 손을 거쳐 오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 또 이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나

누고 소통하는 것. 이런 일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쳤는지, 혹시 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커피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과 고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낼수록 더 많은 교류와 산업의 성장에 뒤따를 것이라 믿습니다.

덧붙여 커피산업 내에는 CoE수상자와 같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상 받은' 농장과 농부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농장과 농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높은 퀄리티를 인정받은 커피를 맛보고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간 퀄리티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농부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지속가능한 커피산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한동안은 지금처럼 여성 소농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스타리카에서 새로운 농부 75명을 모집해 트레이닝할 예정이고요. 이들의 커피를 어떤 방식과 형태로 시장에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 소농들이 더 나은 품질의 커피를 지속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시장에 직접적으로 판매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염두에 두고, 진폭적으로 지지하며 시장에 이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한 커뮤니티의 농부들과 함께 할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이들의 커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